



도하아시안게임 D-7



박태환 “수영 3관왕 출격 완료”

보름간 중 전훈 마치고 귀국
턴·초반 스피드 집중 보완

아시안게임 수영 3관왕을 노리는 '마린보이' 박태환(17·경기도·사진)이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보름간 고지대 전지훈련을 마치고 23일 귀국했다.
지난 8일 쿤밍을 떠난 박태환을 비롯한 수영선수단 23명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막판 담금질 및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해 태릉선수촌에 입촌했다.
노민상 대한수영연맹 경영 총감독에 따르면 박태환은 쿤밍 전훈에서 '턴(turn)' 연습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며 단위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훈련을 집중 실시했다.
자유형 200m 금메달을 겨냥한 것으로 중·장거리 전문인 박태환이 초반 스피드가 달린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자유형 1,500m에 대비해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하며 지구력을 끌어올리는 훈련도 병행했는데 산소가 부족

한 고지대였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태환은 현재 컨디션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번 전훈에서 오른쪽 손에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큰 상처는 아니지만 노민상 감독은 상처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인근 병원에서 수술용 장갑을 구해 끼도록 한 뒤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노 감독은 “현지 수영장 시설이 나후물 등에서 빠져나오며 손을 짚을 때 상처를 입었다. 껌만 만금 상처가 크지 않았고 응급치로도 잘 됐다. 태릉에서 다시 치료를 받았다. 하루 이틀이면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대회기간 태환이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 온 신경을 다 썼다”며 “쿤밍공원에서 한국형 비행기를 타기 전 태환이가 얇은 옷만 입고 나왔길래 감기에 걸릴 우려가 있어 크게 걱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8일 국가대표 선수단 본진과 함께 도하로 출발하는 박태환은 남은 기간 다시 단위 스피드를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할 계획이다.

데니스 강 부상회복
내달부터 훈련 재개



한국계 혼합 격투기 선수 데니스 강(29·사진)이 이달 초 종합 격투기 프라이트 대회에서 입은 오른팔 부상을 회복해 내달부터 기초훈련을 재개한다고 23일 소속사 엔트리안이 밝혔다.
지난 5일 프라이드 웰터급 준결승에서 다친 데니스 강은 부상을 안고 미사키 가즈오(일본)와 결승을 치러 약화됐으며, 미국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오른 팔뚝 인대가 약간 파열됐을 뿐 수술을 받거나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지경 엔트리안 홍보팀장은 “데니스 강이 재활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내달 초부터 달리기, 웨이트 트레이닝 등 본격적으로 기초 체력을 키우는 데 몰두할 것이다. 하지만 부상이 완쾌되지 않아 당분간 스피링과 같은 격한 훈련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엔트리안은 또 데니스 강 부상이 호전됨에 따라 국내 격투기 대회 스피릿MC 미들급 챔피언 임재석(27)과 헤비급 가라테 파이터 김재영(23)을 그가 속한 아메리칸 타입(ATT)에 파견, 2~3개월 동계 훈련을 함께 받게 할 계획이다.

한국, 야구·女배구 '대만 경제력'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12.1~15) 한국 선수단에 대만 경제력이 발령됐다.
가장 관심을 끄는 종목은 국내파로 드림팀을 꾸린 야구다.
한국은 지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예선에서 대만을 2-0으로 꺾는 등 역대 상대전적 7승 5패의 근소한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이달 초 코나미컵 아시안시리즈 때 한국시리즈를 2연패한 삼성 라이온즈가 대만 챔피언 리뉴 베어스에 2-3으로 역전패하는 수모를 당했다.
골이 아마선수들이 주축을 이뤄 참가한 제16회 대륙간컵 예선에서도 연장 12회 혈투 끝에 7-9로 고배를 들었다.
도하에서도 대만은 한국의 3연패 길목에

서 반드시 넘어야 할 적수다.
30일 예선리그 첫 경기에서 맞붙는 대만은 일본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장치엔밍(요미우리), 린언위(라쿠엔), 린웨이쥬(한신)와 미국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귀홍즈(LA 다저스) 등 수준급 투수들이 많고 지난 해까지 다저스에서 뛰 메이저리그 경력의 주포 켈진광(리뉴)을 앞세운 타선도 강하다.
여자 배구도 메달 수확의 최대 걸림돌은 30일 예선리그 첫 경기에서 격돌하는 대만이다.
한국은 역대 전적에서 14승1패의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달 초 세계선수권 대회 예선에서는 대만에 2-3 패아웃 패배를 당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유도 간판스타 장성호
“2인자 불명예에 탈피” 선언

한국 유도 중량급의 간판 장성호(28·수원 시청·100kg급)가 메이저 대회 금메달 한푼이 나오지 않는다.
그는 다른 종목 경기 결과에 따라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길 가능성도 있어 더욱 분발할 태세다. 장성호가 경기를 갖는 12월2일에는 유도를 제외하고 4개 종목(역도, 사격, 수영, 체조)에서 금메달이 나오는데 장성호가 한국 선수단 1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있다.
‘만년 2인자’ 불명예를 벗은 장성호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1999년 세계선수권, 2003년, 2004년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에 그쳤으나 2005년에서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키의 계절이 왔다
23일 캐나다 레이크 루이스에서 열린 월드컵 남자부 활강 경기에서 이탈리아의 커트 슈슬렌버허가 기문(旗門)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금)

- ▲제61회 전국대학 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14:00·KBSN SPORTS)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단체전(14:00·MBC ESPN)
▲프로농구(KCC-삼성)(18:50·X-sports), (KT&G-SK)(18:50·SBS스포츠)

9급 공무원 국가직 서울시 광주시 전남도 채용시험대비
전남고시학원
www.jnsh.com

기시 마구원장 체비소강의!!
광주건축토목학원
www.gjct.ac.kr

대한민국 최대의 국내·국제결혼 전문회사
(주)웨딩스쿨
www.wedding-school.com

그녀는 토끼를 사랑해
www.godog.com

고개숙인 男性... "히세"
www.hise.com